

신안군 19세기 한-불 첫 만남 기념 문화예술축제

5월11~12일... '비금도, 한불교류 역사의 시작과 내일' 학술행사 삼페인·막걸리 시음, 교류 사진전, 판소리·상송 공연 등 선 보여

한국과 프랑스의 19세기 첫 만남을 기념하는 문화예술 축제가 신안에서 열린다. 신안군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 신안 삼-막 축제 실행계획 보고서'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보고회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최미숙 전남도의회 의원, 권오연 신안군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제 일정과 행사 내용 등을 논의했다. 축제는 오는 5월11일~12일에 열 예정이다.

'신안 삼-막(삼페인·막걸리) 축제'는 1851년 신안 비금도에서 시작한 한국-프랑스 교류를 알리는 국가 간 문화예술 축제로 진행된다.

1851년 비금도에 표류한 프랑스 고래잡이선 나르발호 선원들이 섬 주민의 도움으로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간 사건을 기념한다.

오는 2026년은 한불수교 140주년인 되는 해다. 신안군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프랑스의 첫 만남이 1851년 작은 섬 비금도에서 시작했음을 알릴 방침이다.

축제 기간 신안에서는 '신안군 비금도, 한불교류 역사의 시작과 내일을 말한다'라는 주제의 학술 행사를 진행한다.

프랑스 배 표류 사건을 담은 '삼페인과 막걸리의 첫 만남'이라는 연극 무대와 프랑스인의 판소리 공연, 한국인의 상송 공연 등 전통 음악 공연이 이어진다. 양국 예술가와 학생들이 문화 공연을 펼치고, 비금도 뱀뿔기 강강술래를 선보이며 공연이 마무리된다.

이 밖에도 한국-프랑스 교류 사진전, 삼페인·막걸리 전사·시음, 전통 음식 만들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마련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 삼-막 축제가 프랑스와 신안군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신안군이 19세기 중반 한국-프랑스의 첫 만남을 기념하는 '2024 신안 삼-막 축제'(5월11~12일)를 위한 실행계획 보고회를 열고 행사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것"이라며 "신안군의 국제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은 오는 20일부터 취약계층에 건강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사업 신청을 받는다. 해남군 관계자가 신선 농축산물을 배송하는 모습. <해남군 제공>

해남군 내달부터 취약계층 건강먹거리 지원

6개월간 전자카드 이용권 제공

해남군은 취약계층에 건강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사업을 3월부터 본격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남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은 물론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지역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채소·과일·육류 등 국내산 농축산물을 살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6개월간 제공한다.

금액은 전년과 같게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 2인 가구 5만7000원, 3인 가구 6만9000원, 10인

이상 가구 12만6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해남군 로컬푸드직매장, 지역하나로마트, 농협몰, GS25 등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국내산 채소, 단순 가공 채소, 두부류, 과일, 흰 우유(산양유 포함), 신선 달걀, 육류, 잡곡, 꿀 등 농축산물을 살 수 있다.

해남군은 오는 20일부터 주소가 있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신청을 받는다. 교통약자와 고령자 등은 매달 선별 포장한 신선 농축산물을 각 가정으로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건강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농가의 판로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어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군 ↔ 현대삼호중공업 업무협약 체결



완도군과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15일 협약을 맺고 기업체 직원 복지를 위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현대삼호중공업 해양치유 활성화 협약

1만5000여명 직원 복지 증진

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과 협업에 나섰다.

완도군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15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현철 완도 부군수와 한정동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완도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삼호중공업에는 협력사 포함 1만500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앞으로 현대삼호중공업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해양치유를 운영하고, 해양치유 시설과 연계

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현철 부군수는 "해양치유는 청정한 해양환경과 비교 우위의 해양자원을 보유한 완도에서 할 수 있는 건강 증진, 힐링 프로그램"이라며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과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더 많은治愈객을 유치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초로 건립된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해수·해조류·진흙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팔라소플, 명상플, 해조류 거품 요법, 진흙·돌·항기 요법 등 16가지의 다양한 해양치유를 즐길 수 있다.

지난해 11월24일 센터 개관 이후 이달 14일 기준 1만4000여 명이 방문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시·무안군·신안군 무안반도 교육특구 지정 신청

'무안반도 공동교육발전'을 내건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이 정부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목포시는 지난 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신청에는 목포시와 목포·무안·신안 교육지원청, 무안군, 신안군이 함께 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교육정책의 특례 적용 기회와 특별교부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3년간 시범 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공동으로 제출된 이번 공모 기획안에는 '무안반도 공동교육발전모델'을 담았다.

지역발전산업 인재양성을 목표로 무안반도 협업체를 구축해 공동연계 교육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해상풍력·해양관광·항공산업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추진 전략과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목포시는 지난 1월 교육지원청, 지역대학, 특성화고 등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교육지원청과 목포시·무안군·신안군이 함께 '무안반도 교육발전특구' 공청회를 열고 전력 과제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해왔다.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광군 올해 벼 재배면적 지난해보다 286ha 줄인다

영광군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전년보다 286ha 줄인다고 18일 밝혔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는 전락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있다. 두 사업 모두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영광지역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9532ha로, 전년보다 147ha 줄었다.

영광군은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을 지키는 농가는 ha당 최대 300포대의 공공비축미를 추가 배정할 방침이다.

법인과 미곡종합처리장(RPC)은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RPC 벼 매입 자금 지원사업 등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때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

'전락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콩, 조사료, 가루쌀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준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고구마, 메밀, 수박 등 일반작물과 꽃거름, 3년생 이하 관목을 벼 대신 재배하면 농가에 ha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영광군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 두류, 가루쌀, 일반작물 등 대체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마항로 903-6(오목리9)